

3/ 도쿄 올림픽과 패전의 풍경

〈이다텐: 도쿄 올림픽 이야기〉와 새로운 대하드라마의 가능성*

김보경



〈이다텐〉 DVD 표지 © 2020 NHK

출처: 『大河ドラマいだてん完全版DVD-BOX』
第1~4集, (NHKエンタープライズ)

김보경(金普慶) 현재 고려대학교 교양교육원 초빙교수, 고려대학교 일어일본학과와 동 대학원 중 일어문학과 졸업 후, 일본 쓰쿠바대학교(筑波大学)에서 GHQ 점령기의 검열과 여성영화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일본의 영상문화와 일본 근현대문학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 최근의 연구로 「1950년대 일본의 여성 문예영화와 남자들」(2019), 「미군 점령기 성병 관리 정책과 성교육 영화: 〈꽃 있는 독초(花ある毒草)〉(1948)를 중심으로」(2019) 등이 있고, 공저로 『일본의 재난 문학과 문화』(2018), 역서로는 『음예 예찬』(2020) 등이 있다.

* 이 논문은 2019년도 일본연구소 발전기금(위임기금-통보25)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https://doi.org/10.29154/ILBI.2020.23.82>

1. 들어가며

드라마 〈이다텐: 도쿄 올림픽 이야기〉(いだてん~東京オリムピック噺~)(이하, 〈이다텐〉)는 NHK 대하드라마 제58번째 작품이자 헤이세이(平成) 마지막 대하드라마로 2019년 1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방송되었다.¹ 2019년 대하드라마가 구도 간쿠로(宮藤官九郎)의 오리지널 각본으로 ‘도쿄’와 ‘올림픽’을 다룰 것이란 사실이 2016년 11월 16일 NHK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었으며,² 일찍부터 2020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제작되는 “통쾌하고 장대한 대하드라마”라며 의욕을 내비쳤다.³ 대하드라마로는 1986년작 〈생명〉(いのち) 이후 33년 만에 근현대가 배경이며,⁴ 일본이 처음으로 올림픽에 참가하게 된 메이지(明治) 말부터 1964년까지 50년 이상을 다루는 이례적인 작품이다.

드라마의 구성 또한 이례적이긴 마찬가지로 전후 라쿠고(落語)계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한 명인 5대 고콘테 신쇼(五代目古今亭志ん生)의 가상 라쿠고 〈올림픽 이야기〉(オリムピック噺)로 극이 진행되며, 신쇼 본인의 인생담도 곁들이면서 제1부의 일본인 최초로 올림픽에 참전한 ‘일본 마라톤의 아버지’ 가나쿠리 시소(金栗四三)에서 제2부의 1964년 도쿄 올림픽 유치에 공헌한 신문기자 다바타 마사지(田畑政治)로 주인공이 중간에 바뀌는 릴레이 형식을 띤다.

대하드라마에서는 거의 없는 해외 로케를 위해 방영 전년도 7~9월이 보통이었던 크랭크인이 4월로 앞당겨졌을 뿐 아니라,⁵ 근래의 NHK 대하

1 방영 종료 후 ‘총집편’(総集編, 2부 구성)이 NHK종합(総合)에서 2019년 12월 30일, BS프리미엄(プレミアム)에서 2020년 1월 2~3일에 방송되었다. 2019년 2월 23일에는 제1회부터 7회까지를 ‘다이제스트판’으로 방송하기도 했다. 또 2020년 5월 2~4일, 드라마의 ‘월드판’ *IDATEN The Epic Marathon to Tokyo*가 총 6회(1회 49분)에 걸쳐 NHK WORLD-JAPAN을 통해 방영되었다.

2 「2019年の大河ドラマは「オリンピック×宮藤官九郎」!」, 2016년 11월 16일, <https://www.nhk.or.jp/dramatopics-blog/2000/257134.html>(최종 검색일: 2020. 4. 26.).

3 「2019年大河ドラマ「いだてん~東京オリムピック噺~」主演は中村勘九郎さん、阿部サダヲさん!」, 2017년 4월 3일, <https://www.nhk.or.jp/dramatopics-blog/2000/266692.html>(최종 검색일: 2020. 4. 26.).

4 1990년대 이후 〈이다텐〉이 제작되기 전까지 근대를 배경으로 한 대하드라마는 〈翔ぶが如く〉(1990), 〈八重の桜〉(2013), 〈西郷どん〉(2018)의 단 세 작품인데, 그 또한 전부 막부 말기에서 메이지까지를 다루고 있다.

5 「来年大河「いだてん」主演・中村勘九郎が熊本ロケ公開 中学生役に驚き 4月撮入は異例の早さ」, 『スポニチ』, 2018년 4월 7일, <https://www.sponichi.co.jp/entertainment/news/2018/04/07/kiji/>

드라마로는 보기 드물게 프로그램 홍보에도 열을 올렸다. 호화 캐스팅인 주연 배우들은 물론 각본을 쓴 구도까지 동원되어 수많은 프로그램에 출연했다.⁶ 수개월 앞당겨진 크랭크인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었을 해외 로케, 초호화 캐스팅과 제작진, 그리고 대대적인 홍보까지, 두 번째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공영 방송 NHK가 이 “이색 대하”(異色大河)를 얼마나 야심차게, 공들여 준비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다각도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이다텐>의 수많은 이례적인 기록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대하드라마 사상 최저의 시청률이었다. <이다텐>의 최저 시청률은 제39화 3.7%(간토 지구 4.1%)로, 드라마 시작 초반인 제6화에 한 자릿수 시청률로 떨어진 이후 최종화(제47화)까지 무려 42회 동안 10%대를 회복하지 못한 채 기간 평균 시청률 8.2%(간토 지구)로 막을 내렸다.⁷ 대하드라마 최저 시청률 경신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제39화는 사실 평균 시청률 39.2%를 기록한 럭비 월드컵 일본 대 스코틀랜드 시합(2019년 10월 13일)과 겹쳤다는 불운을 탓할 수 있으나, 전체 방송의 90%에 달하는 기간 동안 한 자릿수 시청률을 넘지 못한 원인은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다텐>의 시청률 견인 실패를 두고 흔히 상대적으로 유명하지 않은 인물들을 다룬다는 점과 복잡한 구성, 그리고 어쩐지 ‘아사도라’(朝ドラ), 즉 연속TV소설(連続テレビ小説)⁸ 같다는 점을 지적한다. 아사도라 같다는 감상은 각본을 맡은 구도 간쿠로와 제작에 임한 주요 스태프들이 이전에 NHK에서 큰 인기를 끈 연속TV소설 <아마짱>(あまちゃん)에서 함께 일했다는 전력 때문에 갖는 편견일지 모른다. 이와 비교하여 기존의 대하드라마에서 크

20180407s00041000269000c.html(최종 검색일: 2020. 4. 26.).

6 「大河「いだけん」異色づくめの「号砲」7大要素も訓覇CP「結果的」勘九郎が「伝統」背負う」, 『スポニチ』, 2019년 1월 6일, <https://www.sponichi.co.jp/entertainment/news/2019/01/06/kiji/20190105s00041000366000c.html>(최종 검색일: 2020. 4. 26.).

7 「NHK大河ドラマ(NHK総合 日曜20:00~)【関東地区】」, 『スポニチ』, https://www.videor.co.jp/tvrating/past_tvrating/drama/03/nhk-1.html(최종 검색일: 2020. 4. 26.).

8 NHK를 대표하는 장기 드라마시리즈 중 하나로 1961년부터 방송하였다. 원래 조건신문의 연재소설을 의식하여 아침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아사도라’(朝ドラ, 아침 드라마)라는 애칭으로 불린다.

게 벗어난 인물 설정과 이야기 구조는 분명 낮은 시청률의 원인이면서 동시에 <이다텐> 최대의 차별점이기도 하다. 확실히 기존의 대하드라마 주인공에 비해 <이다텐>이 표면상 두 명의 주인공이라 내세우고 있는 가나쿠리 시소와 다바타 마사지는 대중에게 친숙한 인물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의 대하드라마는 그전과는 달리 여성이나 역사의 조연으로 여겨진 인물 등을 재조명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⁹ 단순히 주인공들의 지명도가 낮은 시청률의 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보다는 스포츠 대하드라마이면서 절반에 가까운 분량을 라쿠고계 인물들을 다루는 데 할애한다는 점이 <이다텐>의 더 큰 ‘문제’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극 전체를 라쿠고로 이끌어 간다는 드라마 서사 구조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이다텐>과 마찬가지로, 이 글은 대하드라마라는 장르 안에서 1964년 도쿄 올림픽 나아가 일본의 근현대사와 올림픽을 논하는 첫 시도가 될 것이다.¹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다텐>은 도쿄 올림픽을 다룬 드라마로서도 대하드라마로서도 ‘이례적’이었기에 시청자 대다수에게 외면당했다.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여, 이 글에서는 먼저 대하드라마란 어떠한 장르이며 기존의 영상 매체는 1964년 도쿄 올림픽을 어떻게 그려 왔는가, 즉 <이다텐>이 참조했어야 할 장르와 표현의 ‘규범’을 확인한다. 그리고 이러한 규범과 관습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다텐>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주요 인물들의 설정과 ‘달리기’라는 모티프, 서사 구조의 측면에서 라쿠고의 접목을 분석하여, 현재 일본에서 역사를 이야기하고 기억하는 하나의 권위적 틀로

9 김서은, 「NHK 드라마에 서사된 격동기 일본과 여성의 역할 연구: 「야에의 벚꽃」(八重の桜)과 「꽃타오르다」(花燃ゆ)를 중심으로」, 『일본어교육』 84호, 한국일본어교육학회, 2018, 81쪽.

10 도쿄 올림픽을 다룬 영상텍스트에 관한 연구는 영화와 뉴스를 대상으로 한 것이 주를 이루는데, 예를 들어 이치카와 곤(市川崑) 감독의 1964년 도쿄 올림픽 공식 기록영화를 잘 알려진 예술인가 기록인가의 논쟁을 중심으로 살펴본 舩本直文, 「『東京オリンピック』の映像解釈: 「芸術か記録か」論争からみたオリビズム」, 『体育学研究』 42卷 3号, 1997, 153~166쪽, 도쿄 올림픽 당시 큰 인기를 구가했던 일본 여자배구팀에 관한 뉴스 보도를 분석한 Iwona Merklejn, “Remembering the Oriental Witches: Sports, Gender and Shōwa Nostalgia in the NHK Narratives of the Tokyo Olympics,” *Social Science Japan Journal* 16(2),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pp. 235~250이 대표적이다. 또한, NHK 대하드라마 연구는 역사적 사건과 실존 인물을 다루는 특성상, 극화된 인물상에 대한 평가나 내셔널리즘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다수이고 최근에는 무대가 된 지역의 관광 유치와 경제 효과를 분석한 연구, 교재로서의 활용 방안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자리매김한 NHK 대하드라마 안에서 <이다텐>의 시도가 보여 준 가능성과 한계를 명확히 한다.

2. NHK 대하드라마와 ‘역사’, 그리고 1964년 도쿄 올림픽

2000년대에 들어서 대하드라마의 시청자를 연령으로 분류하자면 50대 이상, 그중에서도 60~7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¹¹ 이는 <이다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 특히 전작들과 비교할 때 70대의 비율이 높았다.¹² <이다텐>의 저조한 시청률은 바로 이 대하드라마의 핵심 시청자층인 70대, 즉 베이비붐 세대를 만족시키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 세대가 주로 보아 왔던 대하드라마란 어떤 것이었을까. 2020년 현재까지 제작된 대하드라마를 배경이 된 시대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¹³ 먼저 이른바 ‘센고쿠모노’(戦国物)라는 아즈치모모야마(安土桃山) 시대를 다룬 것이 가장 많아 전체의 약 36%를 차지하는데, 이들 작품은 대부분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큰 인기를 누렸다. 대중에게 가장 친숙한 ‘영웅’들인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의 시대이며, 그만큼 다루는 사건이나 등장인물들의 관계, 대략적인 결말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청자가 안심하며 즐길 수 있으면서, 동시에 알고 있는 사건이나 인물, 전투 등을 어떻게 연출할지 기대하게 만든다는 점이 인기의 요인으로 꼽힌다.

다음으로는 ‘바쿠마쓰모노’(幕末物)라 불리는 에도(江戸)시대 말기에서 메

11 『放送研究と調査』(NHK放送文化研究所) 2005년 9월호~2020년 3월호의 시청률 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정리. 기간호에 관한 정보는 웹사이트 <https://www.nhk.or.jp/bunken/book/monthly/backnumber.html>를 참조.

12 中山準之助·伊藤文·保高隆之·内堀諒太, 「テレビ・ラジオ視聴の現況: 2019年11月全国個人視聴率調査から」, 『放送研究と調査』 70卷 3号, 2020. 3., 93쪽. 참고로 10대 남녀, 20대 남성 시청자는 0%였다.

13 前田崇博, 「大河ドラマのマスコミ社会学的批評」, 『大阪城南女子短期大学研究紀要』 53卷, 大阪城南女子短期大学, 2019年 3月, pp.138~139의 데이터를 참고로 정리하였다.

이지 초기까지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 많다. 평균 시청률은 ‘센고쿠모노’에 비해 다소 저조하나, 암살과 파벌 정치를 다루면서 신념이나 정, 유대 등을 중시하는 정서로 인해 남성 시청자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다. 세 번째로 많이 제작된 것은 비교적 편안한 마음으로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 융성기인 겐로쿠(元禄)시대를 다룬 작품이며, 헤이안(平安)시대에서 가마쿠라(鎌倉)시대 초기까지를 배경으로 겐페이 전투(源平合戦) 등을 소재로, ‘무사도’나 윤리관, ‘정’을 다루는 작품이 네 번째로 많다.

그 외에 무로마치(室町)시대나 가마쿠라시대를 다룬 작품도 몇 있으며, 1980년대 중반에 단 세 편이기는 하지만 근대를 다룬 일본계 미국인 가족의 이야기(《山河燃ゆ》, 1984), 흔히 일본 최초의 여배우라는 수식어가 붙는 가와카미 사다야코(川上貞奴)의 일생을 그린 작품(《春の波濤》, 1985), 여의사의 활약을 그린 작품(《いのち》, 1986)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대하드라마 시청자들의 시대물 선호로 인해 앞뒤로 방영된 시대물들의 큰 성공과 비교하여 저조한 시청률을 기록하였다.¹⁴

이상을 종합하면, 대하드라마의 주요 시청자들은 작품마다 조금씩 다른 연출과 각색을 즐기면서도 결국은 친숙한 역사상의 인물과 사건을 다루기를 바라는 ‘안정 지향’의 성향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의 측면에서도 ‘신념’, ‘유대’, ‘정’, ‘무사도’와 같이 익숙한 ‘일본적’ 정서를 다루는 작품이 많은 것 또한 같은 맥락이다. 이런 성향을 고려할 때, 일본 안에서도 해석과 평가가 갈릴 이야기가 산재하는 근대보다는 그 이전의 시대를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게 느껴진다.

역으로, 이는 대하드라마가 지난 6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써 온 일본의 ‘역사’ 또는 ‘국가서사’(narrative of nation)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보여 주기

14 ‘근대 3부작’ 직전에 방영된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 1983)의 기간 평균시청률 31.2%, 3부작 이후의 시대물 작품들인 <외눈의 용 마사무네>(独眼竜政宗, 1987) 39.7%, <다케다 신겐>(武田信玄, 1988) 39.2%, <가스가노쓰보네>(春日局, 1989) 32.4%에 비해, 근대물 3편은 각각 21.1%, 18.2%, 29.3%에 머물렀다. 『NHK大河ドラマ(NHK総合 日曜20:00~)【関東地区】』, 『ビデオリサーチ』(최종 검색일: 2020. 5. 20.).

도 한다. 주지하다시피 국가서사란 하나의 국가 공동체가 공유하는 이야기, 역사적 사건, 풍경, 국가적 상징과 이미지 등의 총합체를 가리킨다.¹⁵ 자국의 국가서사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국민국가의 구성원들은 국가정체성을 형성하며 이는 그들 사이의 강한 사회적·심리적 유대감을 만드는 기초가 된다.¹⁶ 다시 말해, 전통이나 역사라고 명명된 것들이 국가서사를 이루고 우리는 이를 공유하면서 같은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다. 국가서사는 다양하고 분열된 역사적 기억의 선택과 배제를 통해 형성되어 가는데, 특히 역사 영화나 TV 드라마는 선택적으로 구성된 국가 이미지를 강조하여 국가서사를 재형성하기에 탁월한 매체로, 오랜 세월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해 왔다.¹⁷

흥미로운 사실은 대하드라마의 견고한 주 시청자층인 베이비붐 세대가 바로 1964년 도쿄 올림픽을 다루며 ‘쇼와’(昭和)의 향수를 자극하는 영상물의 주요 대상층이기도 하다는 사실이다.¹⁸ 이들 작품은 대개 베이비붐 세대가 어린 시절을 보낸 1960년대를 그리면서 옛 추억을 소환하여 향수에 젖게 하려는 목적이 다분히 드러나는 서사가 주를 이룬다. 예를 들어, 1964년 도쿄 올림픽을 배경으로 한 NHK 드라마 중 최근작인 연속TV소설 〈히요코〉(ひよっこ)¹⁹는 1964년부터 1968년에 걸쳐 이바라키현(茨城県) 농촌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여주인공이 ‘집단취직’(集団就職)²⁰으로 상경하여 겪는 파란만장 성장기를 그린 드라마로, 올림픽을 비롯한 당시의 중요한 사건들이 극 중 끊임없이 등장한다.

15 Stuart Hall, "The Question of Cultural Identity," Stuart Hall, David Held, and Anthony G McGrew eds., *Modernity and Its Future*, Cambridge, MA: Polity Press, 1992, pp. 273~326.

16 Anthony D. Smith, *National Identity*, Reno: University of Nevada Press, 1991; E. Dawson, P. Kenneth, and S. Dawson, *Political Socialization*,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77.

17 A. Hutton, "Historical Films as Tools for Historians," J. E. O'Connor ed., *Image as Artifact: The Historical Analysis of Film and Television*, Malabar: Robert E. Drieger Publishing Company, 1990

18 吉藤昌代·齊藤孝信·林田将来·山本佳則, 「テレビ・ラジオ視聴の現況: 2018年6月全国個人視聴率調査から」, 『放送研究と調査』, 68卷 9号, NHK放送文化研究所, 2018. 9., 91쪽.

19 NHK 연속TV소설 96번째 시리즈 작품으로, 2017년 4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방송되었다.

20 1950~1960년대를 중심으로 지방의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집단으로 도시로 나가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혹은 영세 기업 등에서 일했던 것을 가리킨다.

〈히유크〉의 제작 총괄 프로듀서 가시 히로시(菓子浩)는 1964년을 도쿄가 현재의 모습으로 변모한 시기이자, “누구나 ‘열심히 하면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믿었던 시대”였다고 정의한다.²¹ 〈히유크〉와 같이 도쿄 올림픽을 매개로 1960년대를 그리는 대부분의 영상 서사는, 이처럼 삶에 대한 긍정과 확실한 소속감이 약속되고, 동시에 국가적 목적이나 신념의 추구가 유효했던 시대 쇼와에 대한 향수에 집중해왔다. 이 같은 통칭 ‘쇼와 노스텔지어’ 혹은 ‘쇼와 레트로 붐’과 연결된 향수는 일종의 성공 공식처럼 여겨지면서, 드라마뿐 아니라 다른 영상 미디어—가장 대표적인 예로, 영화 〈올웨이즈-3번가의 석양〉(ALWAYS 三丁目の夕日, 2005)—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²²

이들이 다루는 1964년 도쿄 올림픽은 아시아 최초의 올림픽이자 전쟁으로부터 부활한 ‘문화 국가’ 일본의 이미지를 강조함으로써, 전범국의 이미지를 새로 쓰고 일본의 경제적·기술적 저력을 세계에 과시하기 위한 행사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또한 ‘천황’, ‘일장기’, ‘기미가요’(君が代), ‘군대’ 등 전쟁의 기억과 관련된 국가적 상징이 부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측면도 지적된다. 특히 일장기는 거리에 나와 성화 릴레이를 구경하는 이들과 TV로 개막식을 보는 이들 모두의 손에 들린 채 펄럭이며, 온 국민이 하나가 되는 감정을 감동의 핵심으로 삼는 영상 미디어의 가장 효율적인 장치로 기능해 왔다.²³ 특히 1964년의 성화 봉송은 10만 명 이상이 참여할 정도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 일본에게 식민 지배를 당했던 나라들의 참여와 함께 당시 아직 미군의 점령 상태였던 오키나와에서 ‘일장기’를 게

21 「平成29年度前期朝ドラ「ひよっこ」ヒロインは有村架純さん!」, 2016년 6월 29일, <https://web.archive.org/web/20161206180210/http://www.nhk.or.jp/dramatopics-blog/1000/247937.html>(최종 검색일: 2020. 4. 26.).

22 Christopher Thompson, “Japan’s Showa Retro Boom: Nostalgia, Local Identity Local Identity, and the Resurgence of Kamadogami Masks in the Nation’s Northeast,” *The Journal of Popular Culture* 44(6), 2011, p. 1315. 이 같은 관점에서 〈히유크〉를 분석한 연구로는 Elisabeth Scherer, “An everyday glimpse of the nation: NHK’s morning drama (asadora) and ritual,” *East Asian Journal of Popular Culture* 5(2), 2019, pp. 111-126를 참조.

23 Christian Tagsold, “The 1964 Tokyo Olympics as Political Games,” *The Asia-Pacific Journal Japan Focus* 23(3), 2009, pp. 3~4, <https://apjif.org/-Christian-Tagsold/3165/article.html>(최종 검색일: 2020. 4. 26.).

양하고 릴레이가 시작됨으로써, 침략과 지배, 폭력이라는 “지워진 기억들” 위에 새로운 이미지를 덮어씌우는 쇼였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²⁴ 그리고 그 정점은 원폭이 투하된 날 히로시마에서 태어난 사카이 요시노리(坂井義則)가 성화 봉송의 마지막 주자로 개막식이 열리던 경기장에 들어온 순간이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두 번째 도쿄 올림픽을 앞둔 2019년에 기획·편성된 <이다텐>도 일견 위와 같은 의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은 듯하다. 오히려 그 목적은 1964년 도쿄 올림픽을 정점으로 한 일본 근대스포츠사를 다름으로써 시청자들에게 ‘영광의 쇼와’를 상기시키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다가올 2020 도쿄 올림픽으로 다시 하나가 될 ‘일본’의 예고편을 최첨단 기술력으로 내보내는 데 있다는 견해도 가능할 것이다.²⁵ 여기에 2013년 도쿄를 방문했던 IOC 위원들과의 만찬에서 1964년 올림픽의 주체가를 부르고, 당시 올림픽으로 일본이 전쟁의 상흔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선 것처럼 이번에는 3.11 동일본대진재를 딛고 부흥할 수 있도록 올림픽 유치를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던 아베(安倍) 총리의 의도를 겹쳐 본다 해도 지나친 해석은 아닐 것이다.²⁶

더구나 남상욱에 의하면, 아베는 일찍이 1964년 도쿄 올림픽과 <올웨이즈-3번가의 석양>을 거론하면서, 당시 서민들의 삶이 보여 주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에 대한 동시대 일본인들의 공감과 향수를 국가대항 스포츠 경기와 교묘하게 연결하며 ‘애국심’으로 유도한 바 있다. 2006년 월드컵

24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Satoshi Shimizu, “Rebuilding the Japanese Nation at the 1964 Olympics: The Torch Relay in Okinawa and Tokyo,” W. W. Kelly and S. Brownell, eds., *The Olympics in East Asia. Nationalism, Regionalism, and Globalism on the Center Stage of World Sports*, Yale CEAS Occasional Publication Series, Book 3, New Haven: Yale University, 2011, pp. 39–59, http://elischolar.library.yale.edu/ceas_publication_series/3(최종 검색일: 2020. 4. 26.).

25 실제로 NHK는 2020년 도쿄 올림픽과 패럴림픽 경기를 앞두고, 시청자들에게 “세계 최고 품질의 영상과 음향으로 TV의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는 채널”로서 발돋움하기 위해, 2018년 12월부터 본격적인 “슈퍼 하이 비전”(super high vision, NHK에서 4K와 8K를 총칭하는 말) 방송을 시작하였다. Matthew Allard, “8K Is Now Being Broadcast in Japan,” *News Shooter*, 1 December 2018, <https://www.newsshooter.com/2018/12/01/8k-is-now-being-broadcast-in-japan/>(최종 검색일: 2020. 4. 26.).

26 「2020五輪招致の評価委員前で歌まで歌った安倍首相」, 『中央日報日本語版』, 2013년 3월 8일, <https://s.japanese.joins.com/JArticle/169136?sectcode=A00&servcode=A00>(최종 검색일: 2020. 4. 26.).

이스볼클래식에서 우승을 거둔 일본 대표 선수단이 돈보다는 나라를 대표해서 싸워 이겼다는 사실에서 느낀 자긍심을 1960년대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소중히 여긴 삶과 등치시킴으로써, 그러한 삶의 방식을 미화하고 그리워하는 일본인들이 자연스럽게 애국심을 이상화하도록 유도한 것이다.²⁷

〈이다텐〉은 표면적으로는 1964년 도쿄 올림픽은 물론 '돈'이 아닌 국가의 '명예'를 걸고 국제무대에서 싸워 온 근대 일본의 스포츠 '영웅'들을 내세우고 있으므로, 주 시청자층인 베이비붐 세대가 선호할 요소를 두루 갖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다텐〉은 이러한 스포츠 영웅들이 시대정신에서 이탈하거나 갈등을 보인 일면을 조명하고, 모두가 그리워하는 전후의 쇼와만이 아니라 일본 근대사에서 가장 문제적 시대이기도 했던 쇼와의 기억을 함께 소환하는 등, 기존 드라마의 관습대로라면 '배제'해야 할 인물과 사건들을 용감하게 '선택'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하드라마를 통해 공유된 이야기에는 갈등과 분열을 야기할 근현대의 상당 부분이 배제되어 왔다. 시청자 대다수도 마치 신화 속 인물들처럼 이미 긴 시간 반복적으로 서사화되어 그 행위에 대한 현재적 평가가 갈릴 염려가 없는 먼 과거 인물들의 이야기를 '편안한' 마음으로 즐겨 왔을 것이다. 이 같은 대하드라마와 주 시청자 사이에 오랜 기간 구축된 감상의 방식과 관습을 〈이다텐〉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은 셈이다. 다시 말해, 〈이다텐〉은 안정 지향의 시청자들이 마음 편하게 시청할 수도, 〈올웨이즈-3번가의 석양〉처럼 향수에 젖은 채 볼 수도 없었던 '불편한' 드라마였던 것이다.

27 남상욱, 「아베 신조 아름다운 나라로 속의 미와 국가: 미시마 유키오의 렌즈를 통해 본 전후 보수주의 미학」, 『일본비평』 제10호, 2014. 2.,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175~176쪽.

3. 대하드라마의 ‘영웅’도 메이지 일본의 ‘국민’도 아닌 주인공들

주지하다시피 대하드라마란 먼 과거의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을 다루는 드라마라는 광범위한 의미가 아니라 1963년부터 방송되어 온 NHK의 드라마 시리즈를 가리킨다. 따라서 각 텍스트와 주 시청자층이 공유하며 축적해 온 일정한 패턴, 즉 대하드라마만의 장르규약(genre code)이 존재하며 대하드라마의 시청자들은 이 같은 규약의 답습과 ‘적당한’ 변형을 즐기기 위해 TV 앞에 자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이다텐>은 주로 ‘이색적인’ 인물과 서사 구조를 통해 이 같은 장르와 시청자 간의 오랜 암묵적 약속을 깨려고 시도했다.

먼저 <이다텐>은 산만하리만큼 다수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그 누구도 보는 이에게 이렇다 할 쾌감을 선사하지 않는다. <이다텐>은 주인공으로 가나쿠리와 다바타를 앞세우지만, 사실은 고콘테 신쇼가 중심인 라쿠고 세계의 인물들, 젊은 시절의 신쇼와 주변 인물들, 구마모토의 가나쿠리 가족, ‘유도의 아버지’ 가노 지고로(嘉納治五郎)가 중심인 도쿄고등사범학교와 대일본 체육협회 사람들, 다바타가 중심인 1964년 도쿄 올림픽 유치팀, 가나쿠리와 함께 일본인 최초로 올림픽에 참가한 미시마 야히코(三島弥彦)를 중심으로 한 미시마 집안과 스포츠를 즐기는 엘리트 집단 텐구 클럽(天狗俱樂部), 수영 대표팀과 여자배구팀 등 주요 등장인물은 셀 수 없이 많고, 이중 적어도 가나쿠리, 다바타, 가노, 신쇼 4인은 주인공이라 부를 만한 비중으로 등장한다.

역사적 인물의 일대기에 스포츠 경기를 다루는 드라마라면, 대체로 주인공이 악전고투 끝에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여 쾌감을 선사하는 상투적 패턴이 기대된다. 그러나 <이다텐>은 많은 주인공으로 인해 극의 진행이 더딜 뿐 아니라, 시청자들이 인내 끝에 도달한 이야기의 결승점에서 각 주인공은 낙오하거나 배제된다. 가나쿠리는 처음 참가한 1912년 스톡홀름 올림픽에서 더위에 쓰러져 결승점에 도착조차 해 보지 못한 채 귀국하고, 두 번째 올림픽 참가는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좌절, 마지막 도전에서 겨우 완주했으나 그 성적은 16위에 그친다. 심지어 거의 확정이나 다름없었던 1964년

도쿄 올림픽의 마지막 성화 주자 자리마저 평화의 상징인 ‘원폭 소년’(atomic boy) 사카이로 인해 밀려난다.

가노와 다바타의 염원인 도쿄 올림픽은 드라마 마지막에 이르러 성대하게 치러지지만, 그 기쁨의 순간 가노는 이미 세상을 떴으며 다바타는 제4회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의 일본선수단 참가 문제로 올림픽 조직위원회를 사임한 후다. 마지막으로 신쇼는 애초에 승패와는 무관한 ‘이야기’의 세계에 속한 존재다. 다시 말해, 권선징악, 통쾌한 승리, 새롭게 연출된 유명 전투 신, 박진감 넘치는 전개 등 그 무엇도 없는 <이다텐>은 우선 ‘흥미’라는 측면에서 대하드라마의 주 시청자는 물론 스포츠드라마를 기대한 시청자들의 욕망 또한 충족시키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 같은 흥미의 요소뿐 아니라, <이다텐>의 주인공들은 근대 국민국가 일본의 ‘국민’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이 부족한 인물들이다. 올림픽이라는 국가의 명예를 건 스포츠 ‘전쟁’을 다루면서도 주인공들을 움직이는 동력이 대의나 국가적 목표의 완수와는 거리가 멀다.

<이다텐> 제8화 「수만 명의 적」(敵は幾万)에서는 스톡홀름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떠나는 일본선수단의 출정식 장면이 그려진다. “니주바시(二重橋)에서는 황거를 향해 정렬하여, 나가이 도메이(永井道明) 교수의 선창으로 만세삼창”이라는 신쇼의 내레이션에 이어 나가이가 “천황 폐하의 위세로 우리 가나쿠리 선수에게 승리의 월계관을 얻게 하시옵소서, 만세!”라고 외친다.²⁸ 그리고 신바시(新橋)역으로 장면이 전환되면, 플랫폼에서 열차에 올라타는 일행을 관중들이 일장기를 흔들며 배웅하는데, 이때 만세와 함께 관중들이 목이 터지도록 부르는 노래가 제8화의 제목이기도 한 「수만 명의 적」이다. <이다텐>의 각 화 제목은 모두 다른 영화나 문학, 음악의 제목 등에서 인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수만 명의 적」은 군가로 전시 일본이 대본영(大本營)발표에서 전승 소식을 전할 때 앞뒤로 내보낸 노래로도 잘 알려져

28 2019년 2월 24일 방영. 대사는 宮藤官九郎, 『NHK大河ドラマ「いだてん」完全シナリオ集』 第1部, 文藝春秋, 2019(이하, 시나리오집 제1부), 193~194쪽에서 인용하였다. 이 외에도 「수만 명의 적」은 제9화, 제10화, 제12화, 제14화에서 흘러나온다.

있다.

황거에서 승리를 다짐한 후 화환과 일장기를 건네받고, 수많은 관중의 만세삼창과 군가에 배웅을 받으며 스톡홀름으로 떠나는 선수단은 흡사 전장으로 떠나는 군인들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이들을 배웅하며 일본 국민이 하나가 된 이 풍경에 20여 년 후 군국주의가 지배하던 일본의 모습이 겹치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수만 명의 적」에는 “패배하여 달아난다면 조국의 수치/기꺼이 죽는다면 너의 공훈”이라는 구절이 있다. 그리고 스톡홀름을 향해 떠나기 전, 도쿄고등사범학교 조교수인 가니 이사오(可兒徳)는 술에 취해 가나쿠리에게 “우리 희망에 위대한 길을 열어 줄 가나쿠리 시소여! 이기지 못하면 방패에 실려서 돌아오라! 승리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외친다.²⁹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 차라리 죽어서 방패 위에 실린 시체로 돌아오라, 즉 패배자로 도망쳐 돌아오지 말고 죽음을 선택하라는 의미다.

메이지 정부는 일찍부터 국민교육 제도 확립에 매진하였는데, 이는 무엇보다 교육으로 국민을 계몽하고 일본인이라는 공통된 국민 의식과 이에 기초한 통일된 국가 의식을 형성하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메이지 정부의 교육이념은 1890년에 공포된 ‘교육칙어’(教育勅語)에 의해 강화되는데, 그 핵심은 국민의 행동규범 제시와 천황 절대주의에 입각한 국체(國體) 사상의 규정이었다. 교육칙어는 ‘인의충효’(仁義忠孝)를 절대적 가치로 하여 국민의 사상을 통일하고, 나아가 헌법으로 보장된 국체, 즉 천황에게 충실한 신민(臣民)의 육성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강조한다.³⁰ 메이지 40년대부터 시작되는 <이다텐> 속 스톡홀름 올림픽 출정식 장면은 위에서 서술한 근대 일본의 교육제도에 의해 형성된 규범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침투되었는지를 잘 보여 주는 듯하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체육 교육은, ‘병식 체조’(兵式体操), 즉 군대식 체조의 집단훈련이 주를 이루었다. <이다텐>에서 올림픽 참가를 위한 자금 지원

29 제8화 「수만 명의 적」(敵は幾万), 시나리오집 제1부, 190쪽.

30 이권희, 「메이지(明治) 후기 국민교육에 관한 고찰: 창가(唱歌)를 통한 신민(臣民)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아태연구』 19권 1호, 경희대학교 국제지역 연구원, 2012, 110~118쪽.

을 청하러 문부성을 방문한 가노에게 고위 공무원들 또한 거세게 반발하며 나라를 대표해서 올림픽에 나간다면 “할복할 각오를 지녀야 마땅하다!”라고 외친다. 일본체육회 회장은 여러 나라 장병들이 함께 찍은 사진을 내밀면서, 서양인과 비교해서 “어른과 아이” 수준의 차이를 보이는 일본인의 신체적 한계를 지적하면서 “이래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일본인의 체격을 향상시켜 ‘싸워 이길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임을 강조한다.³¹

답답해하는 가노에게 당시 와세다 대학 총장이었던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는 “전승국이 된 일본 국민에게 승부란 목숨을 거는 일”이 되었다며, 스포츠의 의의를 이해시키기란 어려운 일이라고 그를 위로한다.³²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은 어느 틈엔가 메이지 국민의 마음을 지배하여, 운동조차도 서양에 대적할 수 있는 ‘신체를 길러 내는’(体を育てる) 것에 초점을 두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이다텐>의 주요 등장인물인 가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라를 잃어진다든지, 패하면 할복이라든지, 아니라고! 평화를 위한 진검 승부! 상대를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면서 이기려고 하는 것! 상호 이해라고! 그것이 올림픽 정신이자 일본 무도의 정신이야!”³³ 가노 뿐만 아니다. 가나쿠리의 고향 친구이자 훗날 그의 부인이 되는 하루노 스야(春野スヤ)는 해군학교에 지원했다가 체력 측정에서 낙방한 가나쿠리에게 “건강한 몸을 나라를 위해서 쓸지 자신을 위해서 쓸지, 정하는 것은 너의 자유다.”라는 말을 건넨다. 스야의 이 한 마디에 가나쿠리 또한 무엇인가를 깨우친 듯, “그렇지, 건강하든 병약하든 내 몸은 내 것이니까!” 하고 외친다.³⁴

<이다텐>의 주인공 가나쿠리 시소는 구마모토의 몰락한 가문 출신으로 집안을 일으켜 세우려는 목표를 안고 도쿄고등사범학교에 진학한다. 그러나 입신출세하려는 당초의 목표와는 달리, 뜻밖에 도쿄에서 마라톤을 접하

31 제1화 「동트기 전」(夜明け前), 시나리오집 제1부, 19~20쪽.

32 제1화, 시나리오집 제1부, 20쪽.

33 제1화, 시나리오집 제1부, 28쪽.

34 제2화 「도련님」(坊っちゃん), 시나리오집 제1부, 59쪽.

고 “달리는 것이 즐거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즐거움’을 경험한다. “내 몸은 나의 것”, 즉 국가에 봉공하기 위한 신체가 아닌 자신이 ‘재미있는 것’을 하기 위한 자신의 몸을 발견한 것이다.

사실 ‘즐겁다’(楽しい)와 ‘재미있다’(面白い)는 〈이다텐〉의 정서를 함축하는 키워드이기도 하다. 드라마 첫머리에서 프랑스 대사관에서 올림픽에 참가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와 가노가 던진 질문은 올림픽이란 것이 “즐거운가? 즐겁지 않은가?”였다. 그러한 가노의 뜻을 이어받아 도쿄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려는 다바타는, 도쿄 올림픽 유치는 시기상조가 아닐까 하고 주저하는 이들에게 “아시아 각지에서 지독한 짓, 끔찍한 짓을 해 온 우리 일본인은 재미있는 일을 해야만 한다.”(アジア各地で、酷いこと、惨いことしてきた俺たち日本人は、面白いことやらなきゃいけないんだよ!)라고 외친다. 이 한 마디에, 이후 올림픽 유치 연설을 하게 될 히라사와 가즈시게(平沢和重)는 생전 가노 지고로가 도쿄 올림픽 유치를 열망하며 “지금부터 제일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외쳤던 모습을 떠올리고 유치 진행에 동의한다.

물론 우리는 가노, 가나쿠리, 다바타가 말하는 ‘즐겁고’ ‘재미있는’이라는 감정, 아시아에 자행한 “끔찍한 짓”을 “재미있는 일”로 갚는다는 발상에 숨은 위험을 간과할 수 없다.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분명한 언어로 반성하고 사죄하는 역사의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동시에 국체를 위해 나를 바치는 ‘국민’도 ‘신민’도 아닌 ‘애매한’ 개인들이다. 그러한 자신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그들을 〈이다텐〉은 그동안 영웅들이 독점해 온 대하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삼았다. 이는 시청자의 관습적 기대에 대한 배반임은 물론, 공영 방송 NHK의 대표 드라마시리즈라는 위치에서 그동안 대하드라마가 역사적 인물을 선택하고 재조명한 방식, 역사를 기록하고 전승해 온 방식의 위반이기도 하다.

4. ‘이야기’(噺)로 포개어지는 도쿄 올림픽과 패전 후 만주(滿州)의 기억

드라마와 관련된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이례적’이라는 수식어가 빠지지 않았던 〈이다텐〉은 대하드라마로서는 이례적으로 매회 마지막에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픽션”이라는 주석을 달았다.

〈이다텐〉에는 두 가지 중요한 ‘허구’가 존재한다. 첫 번째는 드라마 전체의 내레이션을 담당하며 동시에 시간상 가장 ‘현재’에 위치하는 〈TV 만담장〉(テレビ寄席) 속 신쇼의 라쿠고 무대이다. 〈TV 만담장〉은 실제 신쇼도 출연했던 NHK 프로그램으로 1953년부터 1956년까지만 방송되었다.³⁵ 그러나 극 중 신쇼가 가공의 창작 라쿠고 〈도쿄 올림픽 이야기〉를 피로하는 것은 1959~1967년이다. 다시 말해, 〈이다텐〉의 ‘현재’이자 전체 틀을 이루는 ‘이야기’(噺) 자체가 허구인 셈이다.

〈이다텐〉이 스포츠 대하드라마에 라쿠고를 섞었다는 점에 다수가 불만을 표했지만, 사실 이 드라마는 각본을 쓴 구도 간쿠로가 제작 총괄인 구루베 게이(訓覇圭)와 “전전부터 전후에 걸친 어둡지만은 않은 드라마”를 만들자는 이야기를 하다가, 가장 먼저 “고콘테 신쇼 씨가 전쟁 중 술이 먹고 싶다는 이유로 만주에 건너간 이야기”를 떠올린 것에서 출발³⁶했을 만큼 라쿠고라는 형식이—어쩌면 올림픽보다—중요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다텐〉은 메이지부터 쇼와의 시대를 산 라쿠고가(家) 고콘테 신쇼의 〈도쿄 올림픽 이야기〉를 통해 가노, 가나쿠리, 다바타 등의 삶을 이야기한다는 구성이다. 드라마의 부제 또한 바로 이 가공의 라쿠고를 가리키며, 따라서 일반적인 이야기(話)가 아닌 라쿠고의 이야기를 뜻하는 ‘噺’(はなし, *hanashi*)로 표기된다. 그러나 여기에 신쇼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와 현재의 삶과 가족, 제자들의 이야기까지 시간을 넘나들며 전개되면서 산만하고 복잡한 전개가 되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일본인과 올림픽의 관

35 「テレビ寄席」, 『NHKアーカイブス NHK放送史』, https://www2.nhk.or.jp/archives/tv60bin/detail/index.cgi?das_id=D0009040009_00000(최종 검색일: 2020. 4. 26.).

36 木下まゆみ編, 『NHK大河ドラマ・ガイド いだてん 完結編』, NHK出版, 2019, 3쪽.

계를 주축으로 한 스포츠 드라마라고 생각한 관객들로서는 예상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라쿠고 이야기에 혼란스러웠을 법도 하다.

일반적으로 대하드라마에서 등장하는 내레이션은 어디까지나 극의 바깥에 존재하며 전체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기 위해 잠시 등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다텐〉은 신쇼와 그의 젊은 시절 미노베 고조(美濃部孝蔵)가 번갈아 등장해 현재와 과거를 넘나들며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극을 전개하며, 게다가 이 둘은 때때로 단순한 화자가 아닌 극 중 인물이기도 하다. 이들의 현란한 배턴 터치에 따라 시청자들도 이야기의 안팎을 넘나들며 드라마의 관객과 라쿠고 관객의 위치를 오고 간다. 이처럼 이야기와의 거리가 끊임 없이 변하는 가운데 시청자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세계가 누군가가 들려주는 이야기, 즉 픽션임을 시종일관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관객/독자가 이야기의 허구성을 잊고 쉽게 동일화와 감정이입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보통의 서사 텍스트가 취하는 모든 전략과는 정반대에 서 있는 드라마인 셈이다.

이 같은 형식은 무대 위의 ‘라쿠고가=가시화된 화자’의 말이 지문이기도 하고 극 중 대화이기도 하며, 눈앞의 청중을 향한 직접적인 물음이기도 한 ‘일인화자’(ひとり語り) 예능으로서 라쿠고 자체의 특징³⁷이기도 하지만, 후술할 라쿠고 〈도미큐〉(富久)에 의해 중첩되는 〈이다텐〉 속 두 개의 역사 중 어느 한쪽에만 시청자가 동일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로서도 작용한다.

〈이다텐〉의 중요한 허구, 그 두 번째는 인물이다. 사실을 바탕으로 한 많은 드라마가 그렇듯 〈이다텐〉에도 실존 인물이 아닌 ‘허구’의 등장인물이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역할이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극 중 ‘현재’ 신쇼의 제자인 ‘고린’(五りん)이다. 올림픽을 한자로 표기한 일본식 발음 ‘고린’(五輪)과 같은 소리를 지닌 이름을 예명으로 받은 그는, 아버지 얼굴을 모르고 자라났다. 어머니의 사망 후, 유품으로 남긴 아버지가 보낸 엽서에서 신쇼의 이름을 보고 제자가 되기 위해 찾아온다. 문제의 엽서는 만주에 건

37 和田尚久, 「落語のラジオドラマ化: その構成と話法」, 『明星大学研究紀要・人文学部・日本文化学科』 23号, 明星大学日野校, 2015, 258쪽.

너가 있던 아버지가 그곳에서 신쇼의 <도미큐>를 보고 “신쇼의 도미큐는 일품”이라고 적어 보낸 것이다.

사실 고린의 본명은 고마쓰 긴지(小松金治)로 그의 외조부는 니혼바시(日本橋)의 백화점에 근무하는 마스노(増野), 외조모는 미시마 가에서 하녀로 일했으며 여자 스포츠에 열정을 지녔던 시마(シマ)이다. 이들 부부는 가나쿠리와도 친분이 있었으나, 관동대지진이 발생한 날 시마는 행방불명이 된 채 돌아오지 못하는 몸이 된다. 시마가 좋아했던 육상 경기의 육(陸, 일본어 발음 ‘리쿠’)에서 이름을 딴 둘의 외동딸 리쿠(りく)는 가나쿠리가 마라톤화로 신었던 일본식 버선을 만드는 가게에서 일하게 된다. 한편 가나쿠리에게는 그의 저서를 읽고 감명을 받아 제자가 된 마라톤 선수 고마쓰 마사루(小松勝)가 있는데, 그는 가나쿠리를 따라 상경하여 훈련에 열중하던 중 리쿠와 사랑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둘이 결혼하여 낳은 아들이 바로 고마쓰 긴지, 즉 고린이다. 이렇게 고린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채, 올림픽 마라톤과 라쿠고라는 <이다텐>의 중요한 두 축을 이루는 세계를 연결하는 존재로 설정되어 있다.

드라마 <이다텐>은 ‘올림픽 이야기’이지만 올림픽은 이다텐(韋駄天)³⁸에 밀려서 제목을 차지하지 못했듯, 처음부터 끝까지 ‘달리기’에 집착한다. 제 1화는 신쇼가 공연을 위해 시바(芝)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버선을 신고 달려가는 남성의 뒷모습을 스친 것에서 시작하는데, 그 모습에서 문득 영감을 받은 신쇼는 그날 공연에서 <도미큐>를 펼친다. <도미큐>는 에도 말에서 메이지에 걸쳐 활약한 라쿠고가 초대 산유테 엔초(三遊亭圓朝)의 작품으로 이후 신쇼를 포함하여 많은 라쿠고 명인들에 의해 공연되었다. 실수로 해고된 아사쿠사의 다이코모치(太鼓持ち-연회석에 나가 흥을 돋우는 남자) ‘규조’(久蔵)가 에도 거리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겪는 촌극이다. 자신을 해고한 주인이 사는 니혼바시(日本橋) 요코야마초(横山町)에 큰 화재가 발생하자, 규조는 이를 주인에게 다시 신뢰를 얻을 기회로 여기고 아사쿠사에서 니혼바시까지 달

38 불법의 수호신 중 하나로 매우 잘 달린다는 속설이 전해 온다. 여기서 전하여, 아주 빨리 달리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 되었다.

려간다. 규조는 그 정성으로 주인에게 용서를 받았으나, 술에 취해 있는 사이 이번에는 자신의 집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는 다시 아사쿠사로 달려가지만, 집은 불타 버려 흔적도 없다.

〈이다텐〉의 가장 처음과 마지막에는 신쇼가 〈도미큐〉 중 규조가 다시 주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아사쿠사를 출발하여 시바까지 달려가는 부분³⁹을 공연하는 장면이 들어간다. 이 첫 화의 〈도미큐〉는 극을 관통하는 ‘달리기’라는 주요 모티프를 암시하는 한편, 47부작의 마지막을 장식한 규조의 달리기는 그 이상의 중요성을 띤다.

〈이다텐〉 최종화 후반부, 여자친구의 출산 문제 등으로 라쿠고를 그만두고 사라졌던 고린은 마음을 다잡고, 도쿄 올림픽의 성화 릴레이에 참가한 직후 스승 신쇼에게 사죄하기 위해 국립경기장에서 시바까지 달려간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장면 중 성화가 경기장에 도착하는 부분에서 마지막 성화 주자인 사카이와 고린이 복장과 동작의 유사성을 통해 비슷하게 보이도록 연출되었다는 점이다. 비슷한 또래인 둘은 같은 복장을 하고, 한 명은 경기장 안으로 다른 한 명은 경기장을 향해 뛰는 것이다. 그리고 카메라는 성화를 들고 경기장의 계단을 뛰어오르는 사카이와 성화의 도착을 보려고 나무를 기어오르는 고린을 교대로 비춘다. 이때 불타오르는 성화 영상에는 신쇼가 “불이다, 불이야!”라며 〈도미큐〉를 연기하는 목소리가 오버랩되면서, 국립경기장에서 진행 중인 국가적 행사와 시바 한구석에서 펼쳐지는 라쿠고 〈도미큐〉의 세계, 그리고 그 이야기가 환기하는 또 다른 과거의 중첩을 암시한다.

성화의 도착을 본 고린은 이제 방향을 틀어 신쇼가 있는 시바를 향해 달

39 패전 후 만주에 남은 일본인들을 위해 라쿠고 공연을 하게 된 고조(=신쇼)에게 고린의 아버지 마사루는 〈도미큐〉를 권한다. 망설이는 고조에게 마사루는 스승 가나쿠리와 달리기 연습을 하던 코스를 떠올리고, 원래 〈도미큐〉에서 규조가 달리는 ‘아사쿠사-니혼바시’ 구간을 ‘아사쿠사-시바’로 연장하라고 권유한다. 마사루의 의견대로 〈도미큐〉를 선보이자 관객들은 크게 즐거워하는데, 그러나 고조의 연기를 보다가 참을 수 없이 달리고 싶어진 마사루는 공연장을 빠져나와 거리를 달리다가 소련군에게 사살당한다. 이후, 신쇼는 언제나 ‘아사쿠사-시바’라는 설정으로 〈도미큐〉를 연기하고, 최종화에서 고린 또한 스승인 신쇼가 있는 ‘시바’까지 달려가게 된다.



〈그림 1〉 <이다텐> 최종화 「시간아 멈춰라.(時間よ止まれ)」 © 2019 NHK

출처: <이다텐> 최종화 「시간아 멈춰라.(時間よ止まれ)」, 2019년 12월 30일에 방영된 '총집편'(総集編)에서 인용

린다. 그가 도착한 시바에서 신쇼는 <도미큐>를 연기 중이다. 그때 갑자기 삽입되는 장면은 만주에서 눈물을 흘리며 젊은 날의 신쇼=고조의 <도미큐>를 보는 고린의 아버지 마사루의 얼굴과 열정적으로 달리는 구조를 연기하는 고조의 모습이다. 쇼트가 바뀌면 방금 등장한 장면을 그대로 현재로 옮긴 것처럼 카메라는 동일한 순서로 무대 위의 신쇼를 보는 고린과 달리는 구조를 연기하는 현재의 신쇼를 비춘다(〈그림 1〉).

그리고 공연이 끝난 후, 신쇼는 <도미큐>의 주인이 구조를 용서하며 한 말과 동일한 대사를 입에 올리면서 자신에게 달려온 고린을 다시 받아들이고, 자신의 <도미큐>에 대한 감상을 묻는다. 그러자 고린은 오래전 자신의 아버지가 만주에서 보내 온 엽서에 적혀 있던 그대로 “일품”이었다고 대답한다.

중간에 삽입된 고린의 아버지 마사루가 고조의 <도미큐>를 보며 감동하는 장면은 원래 <이다텐>의 출발점인 “만주에 건너간 신쇼” 이야기이자 대하드라마 사상 최악의 시청률을 기록한 문제의 제39화 「그리운 만주」(懐かしいの満州)⁴⁰ 중 한 에피소드다. 술이 마음껏 제공된다는 말에 동료와 함께

40 제39화의 제목은 만주영화협회, 통칭 ‘만영’(滿映)의 기록영화를 담은 DVD 시리즈 『만주 아카이



〈그림 2〉 <이다텐> 제39화 「그리운 만주」 © 2020 NHK

출처: 『大河ドラマいだてん完全版DVD-BOX』 第3集, NHKエンタープライズ, 2020

위문 공연을 하러 만주로 떠난 고조는 그곳에서 만난 마사루와 패전을 맞는다. 그들은 얼마 전까지 자신들이 라쿠고 공연을 했던 영화관이 폐허나 다름없는 모습으로 변한 것을 보고, 중국인들의 욕설이 섞인 낙서와 땅에 떨어져 짓밟힌 일장기와 마주한다. 고조와 일행은 소련군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관객이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지만, 예상을 깨고 100명이나 되는 만주의 일본인들이 “어차피 죽을 운명이라면 웃다가 죽겠다.”라는 심정으로 라쿠고를 들으러 온다. 중국인들의 보복으로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망가지고 “일본놈”(日本鬼子), “동양귀”(東洋鬼, 당시 중국인들이 일본인 병사를 가리키던 말)라는 낙서가 가득한 곳(〈그림 2〉)에서 고조는 <도미큐>를 연기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웃음 짓던 고마쓰는 ‘엽서’를 들고 밖으로 나가 달리던 중 소련군의 총에 맞아 숨을 거둔다.⁴¹

즉, <이다텐>은 전 47화에 걸친 드라마의 결승점에서 홀로 찬란하게 정

브』(滿州アーカイブス) 중 ‘만영 작품 망향편’(滿映作品望郷編, 2015년 발매)의 제목에서 가져온 것이다.

41 만주에서 구마모토의 부인에게 부칠 엽서를 들고 댕 때 마사루는 스승 가나쿠리에게 배운 특유의 호흡을 하며 달리는데, 최종화 마지막 장면에서 신쇼를 향해 달릴 때의 고린 또한 마찬가지로 같은 호흡법으로 숨을 쉬며 달리는 것으로 연출되어, 마사루의 마지막 달리기와 올림픽 개회식 날 고린의 달리기를 중첩시키는 데 일조한다.

점을 장식해야 할 도쿄 올림픽 개막식에 과거 일본이 침략한 땅 만주에서 패전과 함께 죽음을 맞이한 한 일본인 병사의 이야기를 포개어 놓는 것이다. 원래 39화에서도 마사루의 죽음은 철저한 희생이자 비극으로 볼 수만은 없도록 연출된 ‘불편한’ 장면이었다. 소련군의 총에 맞고 죽었지만 아마도 출정 이후 다른 누군가에게 무수히 총을 겨누었을 마사루, 그리고 무엇보다도 라쿠고에 손뼉 치며 웃는 일본인 관중들 뒤로 선명히 비치는 중국인들의 분노에 넘친 낙서는, 그들이 밟아 있는 땅의 원래 주인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사실 39화 이전에도 <이다텐>은 올림픽 이야기 속에 계속해서 불편한 역사의 장면들을 삽입해 왔다. 1932년 LA 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나가타 히테지로(永田秀次郎) 도쿄 시장과 가노 지고로가 1940년 도쿄 올림픽 유치를 추진하려던 때, 만주사변이 발발한다. 이러한 당시의 상황을 전하던 중 갑자기 장면이 전환되면서 1961년 신쇼의 집에서 나누는 대화가 삽입된다. 신쇼가 “그거야 너, 국민은 관동군(關東軍) 만세였지. 저쪽에서 건 싸움이다, 중국 따위 해치워 버리고 그 김에 만주 점령해 버려라고.”라며 당시의 여론을 설명하자, 고린은 “하지만 관동군에 의한 자작극이었다고 학교에서 배웠는데요.”라고 놀란다. 이에 신쇼는 “그건 전후가 된 다음의 이야기지. 당시에는 일본에 불리한 말은 신문도 쓰질 않았어. 그만큼 군의 힘이 강해졌었지.”라고 대답한다.⁴² 쇼트가 바뀌면 시간은 다시 1930년대로 돌아가, 니혼바시의 한 바에서 만주사변에 대해 대화하던 다바타와 동료 기자 고노 이치로(河野一郎, 후일의 중의원의원·올림픽 담당 장관)는 “신문은 이제 틀렸어, 언론의 자유는 언젠가 군에게 빼앗길 거야.”라고 퇴사를 선언하는 장면이 이어진다.

또 제23화 「대지」(大地)에서는 관동대지진이 묘사되는데, 실종된 시마를 찾아 폐허가 된 도쿄를 밤중에 달리던 가나쿠리는 자경단에게 ‘사투리’를 쓴다는 이유로 붙잡혀 다음과 같이 힐문을 당한다. “너, 일본인이냐, 어디에서 어떻게 왔어!” “뭐야 그 말투는! 일본인이 아니군!” 당황한 가나쿠

42 제24화 「달려라 대지를」(走れ大地を), 시나리오집 제2부, 74쪽.

리는 “구마모토! 나 구마모토야!”(熊本! わしや熊本だけん!)라고 외친다. 자경단이 ‘표준어’가 아닌 일본어 발음에 가나쿠리의 정체를 ‘무엇’이라고 의심했는지는 바로 다음 장면에서 확실해진다. 실랑이를 벌이던 중 지인을 만나 다행히 풀려난 가나쿠리는 자신을 추궁하던 남자들이 자경단이며 그들이 “이 재해의 혼란 속에 퍼지고 있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 즉 누군가 “우물에 독약을 풀었다”(井戸に毒薬が撒かれている)는 소문을 믿고 ‘그자’들을 색출하기 위해 돌아다닌다는 설명을 듣는다.⁴³ 여기서 자경단이 ‘이상한 일본어’를 구사하는 남자를 불러 세워 잡아내려고 했던 ‘그자’들이 ‘재일조선인’임은 명백하다. 최초로 올림픽에 출전한 자랑스러운 ‘일본인’이어야 할 주인공이 ‘국어=일본어’와 다른 말투로 인해 일본인의 자리에서 밀려날 위기에 처하는 것은 물론, 재난을 틈타 고개를 든 재일조선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그리는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물론 이것은 절대로 <이다텐>이 침략 전쟁이나 식민 지배, 차별의 역사에 대한 책임 의식이나 반성을 담은 드라마라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다만, 앞서 라쿠고식 서술 구조를 통해 드라마의 메인 플롯인 스포츠와 올림픽 이야기에 대한 시청자의 동일화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이다텐>의 혐의가, 마지막의 <도미큐>로 겹쳐지는 도쿄 올림픽과 만주 이야기에서 확신으로 바뀌는 것만은 분명하다. 기록되는 역사는 하나일지 모르지만, 과거의 이야기는 하나일 수 없다. 원폭이 투하되던 날 히로시마에서 태어난 아이가 패전을 던고 부흥에 성공한 ‘평화의 일본’을 상징하며 TV를 통해 전 세계인의 앞에 등장해 새로운 역사로 기록되는 순간,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또 한 명의 아이는 역사의 무대 뒤편에서 ‘라쿠고’의 이야기를 통해 같은 전쟁으로 인해 죽은 아버지를 기억한다. 개막식과 만주 이야기가 시작되기 직전, 라쿠고 공연장으로 향하는 신쇼가 탄 택시 안에서 스스로 택시 기사로 분한 구도 간쿠로가 읊는 “오늘은 모두 차를 멈추고 하늘만 보고 있다.”라는 대사처럼, 모두가 평화와 부흥의 올림픽 서사에 마음을 빼앗길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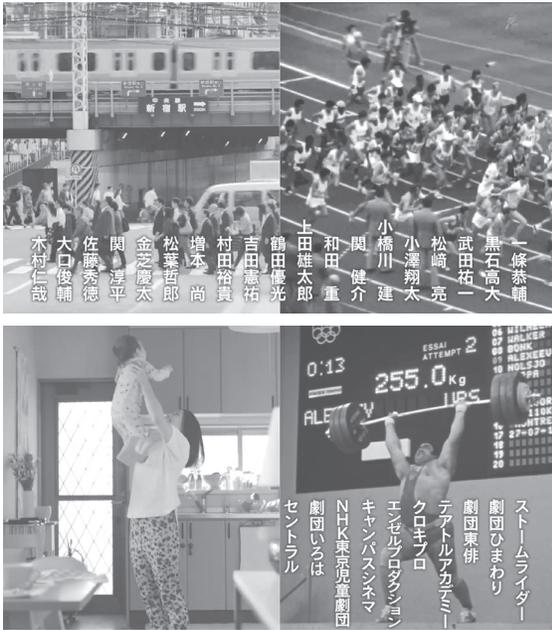
43 제23화 「대지(大地)」, 시나리오집 제2부, 512쪽.

〈이다텐〉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하늘 ‘아래’의 이야기도 같이 들려주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다텐〉 제39화가 방영되었던 그 시각, 2019년의 일본인들 대부분이 럭비 월드컵의 일본팀 경기를 보고 있었다. 스코틀랜드팀을 상대로 싸운 일본 대표팀이 승리를 거머쥔 80분간의 드라마는 같은 시각 이를 함께 지켜본 일본인들에게 ‘우리’와 ‘하나’라는 감각을 부여했을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하늘을 쳐다보며 올림픽에 환호할 때 홀로 〈도미큐〉를 보며 만주를 떠올렸던 고린처럼, 〈이다텐〉을 시청한 3.7%의 사람들은 럭비 승리의 이야기 대신 패전 직후의 만주와 그곳의 일본인들 이야기를 기억할 것이다.

〈이다텐〉의 연출을 담당한 이노우에 쓰요시(井上剛)는 “근현대사이고 올림픽이니까 제재는 웅장하지만, 역사상의 인물이 필요로 할 그런 큰 이야기가 아니라, 손이 닿을만한 거리에 있을 법한 작은 이야기”를 그리려 했다고 말한 바 있다.⁴⁴ 이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다텐〉의 오프닝 크레딧으로, 좌우로 분할된 화면에 각각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의 활약상과 일상 속에서 그들과 유사한 동작을 하는 ‘보통 사람들’의 모습을 나란히 보여 준다. 예를 들면 ‘육상 선수들과 출근하는 사람들, 무거운 역기를 들어 올리는 선수와 아기를 안아 올리는 어머니’라는 식이다(〈그림 3〉). 이는 이 글에서 검토한 〈이다텐〉의 ‘이례적’인 특징을 함축적으로 보여 준다. 위대한 ‘영웅’도,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국민’도 아닌 사람들이지만, 역사가 국가 대표들의 눈부신 활약을 기록할 때, 이들도 같은 시간 저마다의 이야기를 쓰는 중이다.

44 「2019年 大河ドラマ「いだてん～東京オリムピック噺～」出演者発表 第2弾」, 2017年 11月 29日, <https://www.nhk.or.jp/dramatopics-blog/2000/285400.html>(최종 검색일: 2020. 4. 26.).



〈그림 3〉〈이다텐〉오프닝 크레딧
© 2020 NHK

출처: 『大河ドラマいだてん完全版 DVD-BOX』第1集, NHKエンタープライズ, 2020)

5. 나오며

이 글에서 여러 차례 말했듯이 〈이다텐〉은 침략과 지배에 짓밟힌 아픈 역사를 안고 살아가는 일본 ‘바깥’의 사람들이 긍정할 수 없는 드라마다. 특히 34, 35회에서 손기정 선수와 남승룡 선수를 다룬 방식에 한국 시청자인 ‘우리’는 즉각 모욕감과 분노를 느낀다. 동시에 이 드라마는 일본의 정치적 보수와 진보, 어느 쪽에게도 달갑지 않을 드라마이기도 하다. 이 드라마의 시도는 오히려 어느 한쪽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하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주저’를 표현하는 데 있었을지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이다텐〉은 모두가 기억하는 근현대사의 ‘상징’을 모조리 경기장에 전시해 두고, 감히 그 경기장 구석에 만담장(審席)을 마련하여 아마도 많은 이들이 불편함을 느낄 또 하나의 근현대사를 이야기하는 불온한 드라마인 셈이다. 1964년 도쿄 올림픽이 ‘문화 국가’이자 ‘경제 강국’이라는 이미지로 전범국·패전국의 과거를 덮어쓰기 위해 사용한 것과 같은

상징들의 틈 사이로 <이다텐>은 그 불편한 과거를 환기하는 장치도 함께 놓아 둔다. 이는 NHK 대하드라마라는 틀에서 <이다텐>이 보여 준 작은 가능성⁴⁵이자, 동시에 한계이기도 하다.

사실 2019년이라는 문제적 시점에 1964년 도쿄 올림픽을 다루는 것만으로도 2020 도쿄 올림픽을 ‘두 번째’ 부흥의 올림픽으로 만들려는 국가적 과업에 연루될 수 있고, 이미 비슷한 의심에서 드라마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이 점을 염두에 둘 때, 어쩌면 두 번째 ‘부흥’ 올림픽이 아니라 두 번째 ‘반납된’ 올림픽의 가능성이 짙어진 현 상황은 오히려 <이다텐>에게는 더 어울리는 ‘이야기’ 바깥의 결말일지 모른다.

덧붙이자면, 다른 대하드라마와는 달리 <이다텐> 공식 홈페이지(<https://www.nhk.or.jp/idaten/r/>)는 방영 내내 해외 접속이 차단되었다. <이다텐>의 후속작인 <기린이 온다>(麒麟がくる)처럼 방영 중인 대하드라마의 홈페이지는 항상 일본 국외로도 열려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의아한 부분이다. NHK의 지난 방송을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볼 수 있는 사이트인 ‘NHK 온 디맨드’(NHKオンデマンド)는 해외 시청이 제한되었고 방영 종료 후 발매된 DVD도 해외 배송이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상 NHK World Premium 채널을 통해 본방송을 실시간으로 보지 않았다면 해외 거주자가 <이다텐>을 시청할 기회는 거의 없었다고 보인다. 해외로의 송출이 제한적인 것은 드라마가 일본으로서는 논란과 비판을 피해 갈 수 없는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의 시기를 다룬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그동안 <이다텐>의 해외 노출을 상당히 통제해 왔던 NHK는 지난 5월 초, 전 47화의 대하드라마를 6개의 회차로 편집하고 영어 내레이션과 자막을 삽입하여 *IDATEN The Epic Marathon to Tokyo*라는

45 이 글에서는 <이다텐>이 기존 대하드라마의 틀에서 벗어난 상황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전통적 의미에서 시청률과 주 시청자층에 관해 다루었다. 그러나 미디어 플랫폼의 다양화를 고려하면 시청률 집계에는 드러나지 않는 시청자가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실제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상에서는 소수이기는 하나 <이다텐>의 충성스러운 시청자가 존재했다는 지적도 있음을 밝혀 둔다(木俣冬, 「NHK「いだてん」の視聴率が極めて冴えない理由大河ドラマ「歴代ワースト記録」の意味, 『東洋経済』, <https://toyokeizai.net/articles/-/286960>(최종 검색일: 2020. 6. 10.).

제목으로 사흘간 NHK WORLD-JAPAN 채널을 통해 송출하였다. <이다텐>과는 달리 이 6부작의 드라마는 NHK WORLD-JAPAN의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감상이 가능하다.⁴⁶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복잡했던 서사 구조가 ‘영어’를 구사하는 전지적 화자=신쇼에 의한 올림픽 이야기라는 단순한 구조로 바뀌었다는 점과 라쿠고 세계의 인물과 모든 에피소드가 삭제되었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 언급한 ‘구마모토’와 ‘재일조선인’ 이야기도 사라졌으며, 만주 이야기는 전혀 다른 맥락으로 탈바꿈했다. 출정하게 된 마사루가 행진하는 장면 바로 다음에, 그 어떤 전후 사정의 설명 없이 병사들에게 쫓기다가 총을 맞고 쓰러지는 마사루의 장면이 짧게 삽입되고 이어서 갑자기 원자 폭탄 투하 장면과 옥음방송(玉音放送)의 음성이 흘러나온다. 라쿠고 <도미큐>와 달리기라는 모티프를 매개로 도쿄 올림픽과 만주 침략의 역사를 포개었던 <이다텐>의 ‘이색적’인 부분은 모두 잘려 나가고, 마사루는 원치 않는 전쟁에 차출되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무고한 희생자로 재탄생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다텐> 방영 종료 후 수개월 뒤 발매된 DVD의 최종화에는 고린이 시바까지 달려와서 신쇼의 <도미큐>를 보는 장면 중간에 삽입되었던, 만주에서 <도미큐>를 연기하는 젊은 날의 신쇼와 이를 보는 마사루의 쇼트들이 모두 삭제되고, 신쇼와 고린의 지난날을 첫 만남부터 회상하는 쇼트들로 대체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사실이다. 재편집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삭제된 것이 1964년 올림픽과 ‘만주’가 겹치는 바로 그 장면이었다는 사실은, 역으로 이 장면이야말로 <이다텐>이 근현대사를 이야기하는 방식이 ‘문제적’임을 가장 잘 보여 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いだてん”에서 “IDATEN”이라는 로마자로, 라쿠고의 “はなし”(噺)에서 “Epic”으로 바뀌면서 원래의 문맥이 모두 삭제된 것처럼, 원작 <이다텐>이 보여 줬던 부족하지만 대담했던 시도는 일본 바깥으로 발신될 기회를 잃었다. 자율적인 예술 공간이 보장되는 현시대에 중심적 위치에 있는 창작자

46 <https://www3.nhk.or.jp/nhkworld/en/ondemand/program/video/idaten/?type=tvEpisode&>(최종 검색일: 2020. 6. 15.).

들이 실험을 시도하는 것은 “예술적 시대성의 발현”이라 할 수 있지만, 만약 정치적으로 종속될 경우 그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⁴⁷ <이다텐>의 종영과 함께 운영의 새 체제를 맞이한 NHK가 ‘다시’ 만든 *IDATEN*의 매끄러운 근현대사가 일본 바깥의 시청자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주목할 차례다.

47 진은영, 「문학의 아나크로니즘: 작은 문학과 소수문학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제67집,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2, 280쪽.